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정보 글 김전한·그림 경자 | 74쪽 | 190*247mm | 무선 | 11,000원

주제어 방귀, 음악, 쓸모, 가치

교과 연계

- 2학년 1학기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3학년 1학기 국어 10. 문학의 향기
- 3학년 2학기 국어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 4학년 1학기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 4학년 2학기 국어 4. 이야기 속 세상

음악이 방귀에서 탄생했다고?

필요 없는 것들이 모두 사라진 완벽한 세상이 있습니다. 풍도 오줌도 방귀도 공해도 말다툼도 없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들만 남아 불편함도 아쉬움도 사라진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발명할지 고민하던 엉뚱한 박사님은 우연히 기묘한 소리, 기괴한 냄새를 가진 공기 한 조각을 만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성가시다는 이유로 인류에게 박멸당한 방귀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되지요. 박사님은 최후까지 살아남은 마지막 방귀 한 줄기를 품어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킨 뒤 무력무력 길러 냅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균실 같은 회색빛 세상에 노란빛 방귀들을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방귀에 전염된 사람들은 잃었던 웃음을 터뜨리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하늘을 올려다보고 불쑥 여행이라는 낯선 길에 오릅니다. 다채로운 방귀 소리의 향연은 어느덧 세상에서 사라졌던 ‘음악’으로 탈바꿈해 다시 살아납니다. 민망하고 불쾌하고 도통 쓰임이 없다고 취급받던 방귀가 감정이 사라진 딱딱한 세상을 아름답고 생기 있게 물들입니다. 실용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뒷전이 된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유쾌한 상상으로 살려 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차근차근 책 읽기 계획

이 독서 지도안은 10차시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책 읽을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안배하고,
 두세 가지 활동 가운데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계		차시	활동내용
읽기 전에	책과 첫인사를 나눠요	1	*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어떤 책일까요? -제목, 작가, 표지 등 기본 정보 살펴보기 -표지를 보고 이야기 만들어 보기
읽으 면서	책 속으로 속! 들어가요	2	*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경험과 연결해 판단해 보기
		3	* 방귀가 박멸당한 이유 -평소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4	* 방귀의 부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물의 생각을 짐작해 보기
		5	* 방귀의 역할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내 경험으로 확장하기
		6	* 방귀가 음악이 되는 순간 -이야기 속 소재로 감각적인 상상 펼쳐 보기
읽고 나서	책 밖의 세상과 이어져요	7	* 상대적이어서 의미가 생기는 것들 -추상적인 개념을 논리적으로 짚어 보기
		8	* 사라진 것을 되살릴 수 있다면? -주제를 통해 생각의 깊이를 키우기
		9	* 책 속 세상으로 간다면?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그림과 이야기로 펼쳐 보기
		10	* 나의 우선순위 - 이야기의 메시지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요

책을 읽기 전 계획과 기본 정보를 다진다.
책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림책을 이해하는 힘을 기른다.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어떤 책일까요?

◎ 책의 표지를 보고 이 책의 정보를 적어 보세요.

	제목:
	글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 표지 그림을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책 속에서 펼쳐질 내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표지 안에 ()이(가) 보여요.
내가 상상하는 책 속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봐요

내용을 읽고 이해한 뒤 주어진 정보와 연결 지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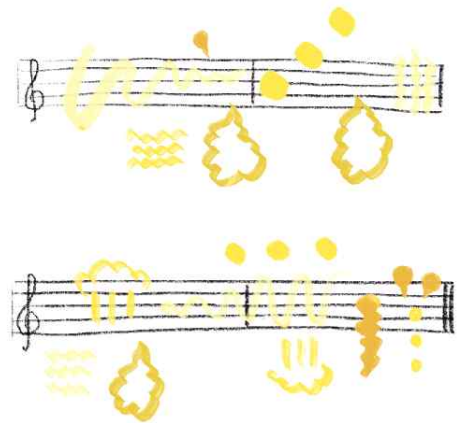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 엉뚱한 박사님이 사는 세상은 쓸모없는 것이 모두 사라진 곳입니다. 어떤 것들이 사라졌는지 책 속에서 찾아서 써 보세요. 그리고 평소 생활 속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들

평소 생활에서 불필요하다거나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자세히 들여다봐요

내용을 살펴본 뒤 생각을 확장해 본다.

방귀가 박멸당한 이유

◎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방귀를 끼지 않고, 트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려 재채기를 하고 코를 고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정말 예의에 어긋나고 없어져야 할 불필요한 일들일지 의견을 써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적어 보세요.

방귀가 인류에서 박멸당한 이유:

방귀와 트림, 재채기와 코골이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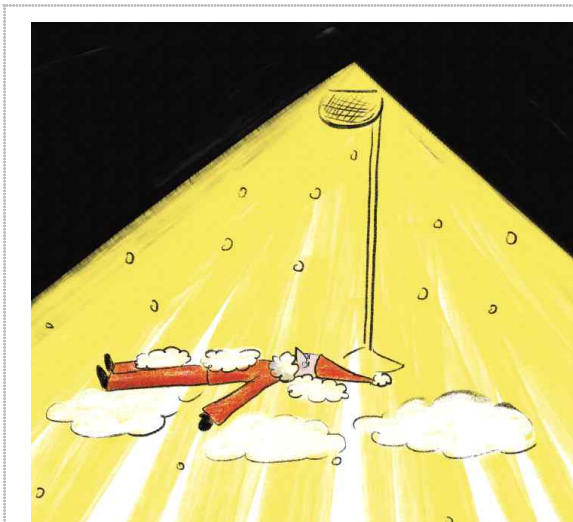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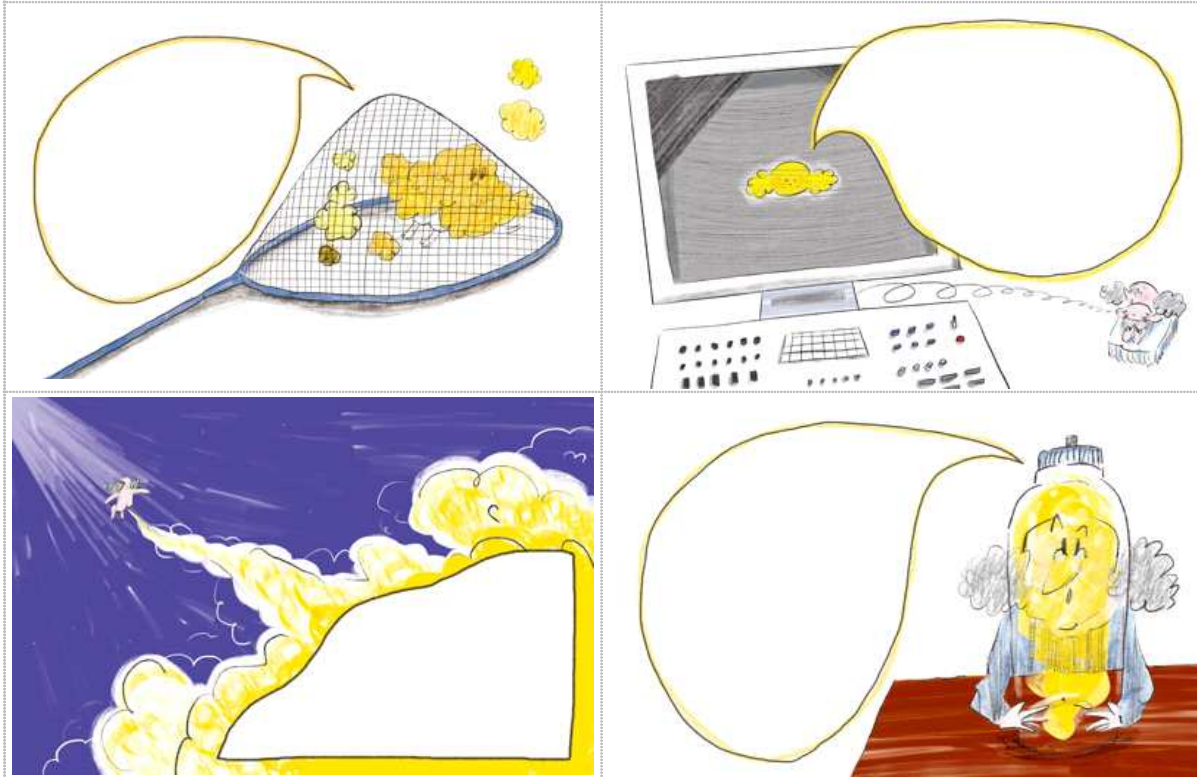
자세히 들여다봐요

내용을 읽고 이해한 뒤 주어진 정보와 연결 지어 본다.

방귀의 부활

◎ 방귀는 어떻게 세상에 부활했을까요? 엉뚱한 박사님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방귀를 낚고 키우고 퍼뜨렸을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써 보세요.

만화처럼 말풍선을 넣어 방귀가 부활한 과정을 방귀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세요.



박사님이 목숨을 바쳐 방귀를 부활시키고 세상에 다시 퍼뜨린 이유:



경험을 나눠요

책의 주제를 나의 삶에 반영하여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른다.

방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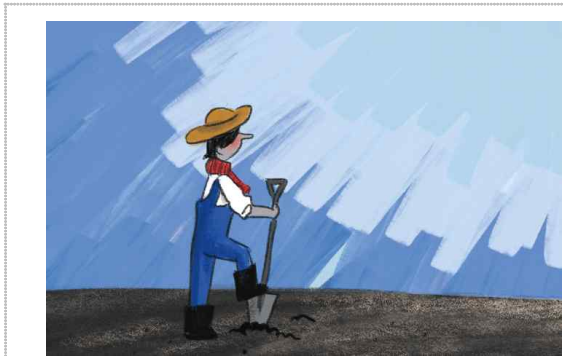
◎ 세상에 퍼져 나간 방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림을 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림 속 방귀와 비슷한 역할을 해 준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적어 보세요.



나를 웃게 하는 것들: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는 것들:



여행을 떠나고 싶게 하는 것들:



그림 속 소재를 선택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 본다.

방귀가 음악이 되는 순간

◎ 방귀 소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나올 때마다 다릅니다. 소리의 길이도 다르고 높낮이도 다르죠. 방귀 소리가 음악이 되었을 때 어떤 악기 소리를 냈는지 살펴보고 실제 악기 소리도 찾아서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 방귀로 음악을 연주한다면 어떤 소리로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상상해 적어 보세요.

호른 방귀



수자폰 방귀



피콜로 방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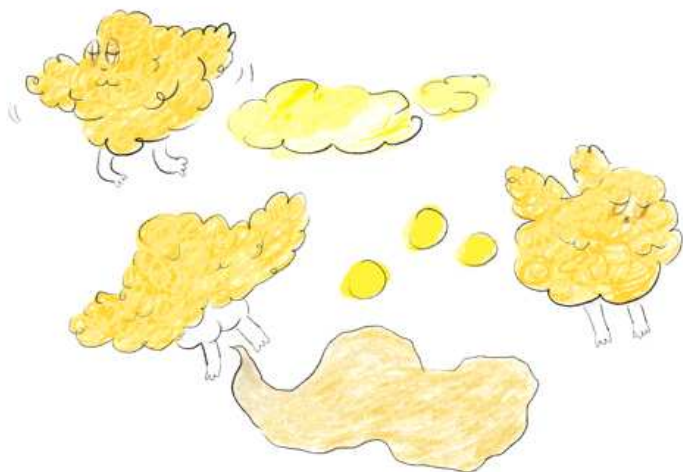
플루트 방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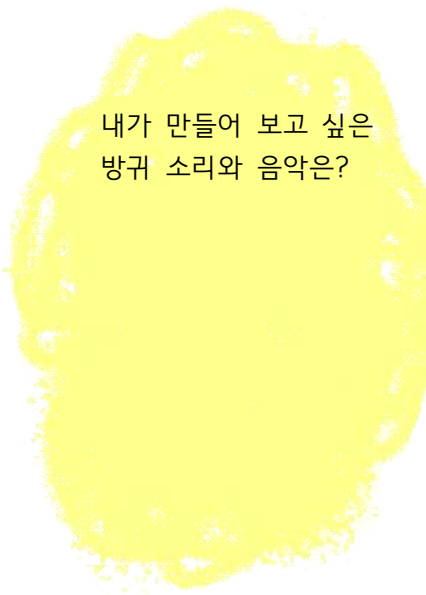
클라리넷 방귀

오보에 방귀

바순 방귀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방귀 소리와 음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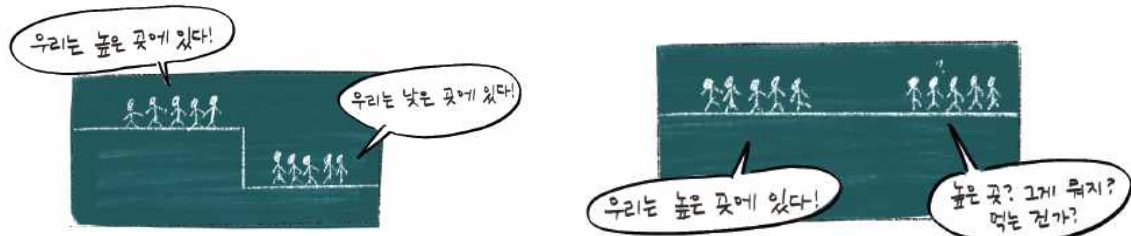


책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상대적이어서 의미가 생기는 것들

◎ 세상의 많은 것들은 반대의 속성을 가진 것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생겨납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 보고 반대의 것이 있어야 가치가 생기는 것들을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왼쪽 칸을 가리고 오른쪽 칸에 있는 것들만 세상에 남았을 때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도 해 보세요.

세상일이란 게 그렇잖아. 별 있으면 담장 아래 그늘 있는 거고,
참외 넝쿨에도 매끈한 놈이 있는가 하면 통방울처럼 시답잖은 놈이 있는 거고,
성질 더러운 놈 있어야 곧은 아이 돋보이는 법이잖아.
쓸모 있는 게 있다면 쓸모없는 것도 있어야 해. 그것이 쓸모없는 것의 쓸모인 거야.



밝음

어둠

선함

악함

더위

추위

높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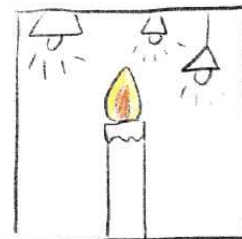
낮은 곳

쓸모 있는 것

쓸모없는 것



쓸모 있는 것



쓸모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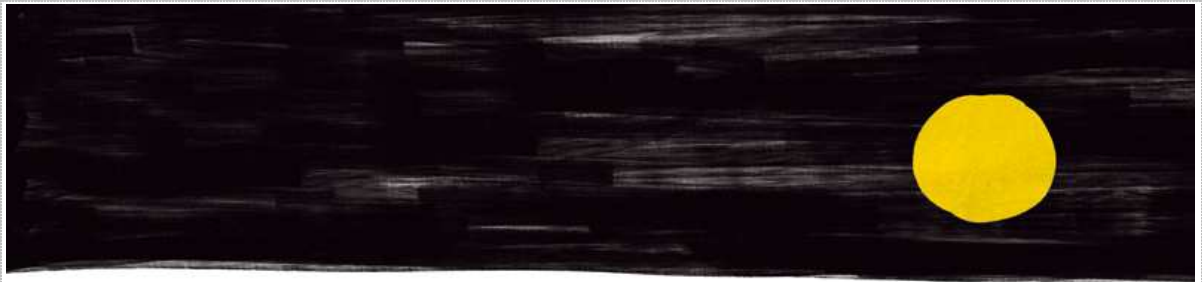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림 속 소재를 선택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 본다.

사라진 것을 되살릴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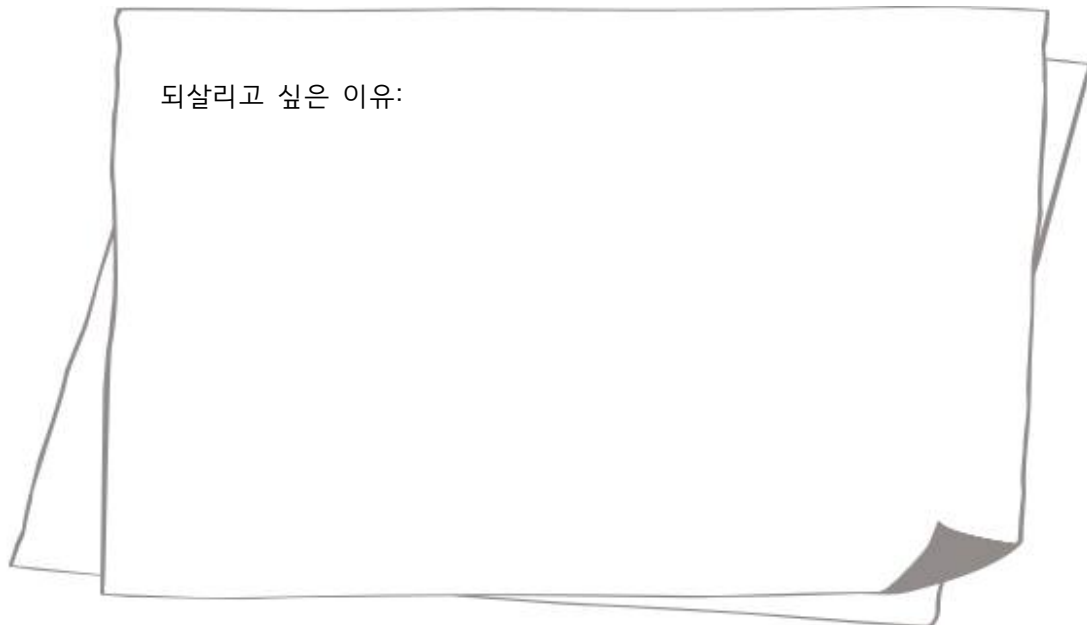
◎ 엉뚱한 박사님처럼 쓸모없다는 이유로 이미 사라졌거나 지금 사라져 가는 것들 중 되살려 내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하찮은 방귀가 소중한 음악이 된 것처럼 내가 되살려 낸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도 함께 써 보세요.



되살리고 싶은 것들:



되살리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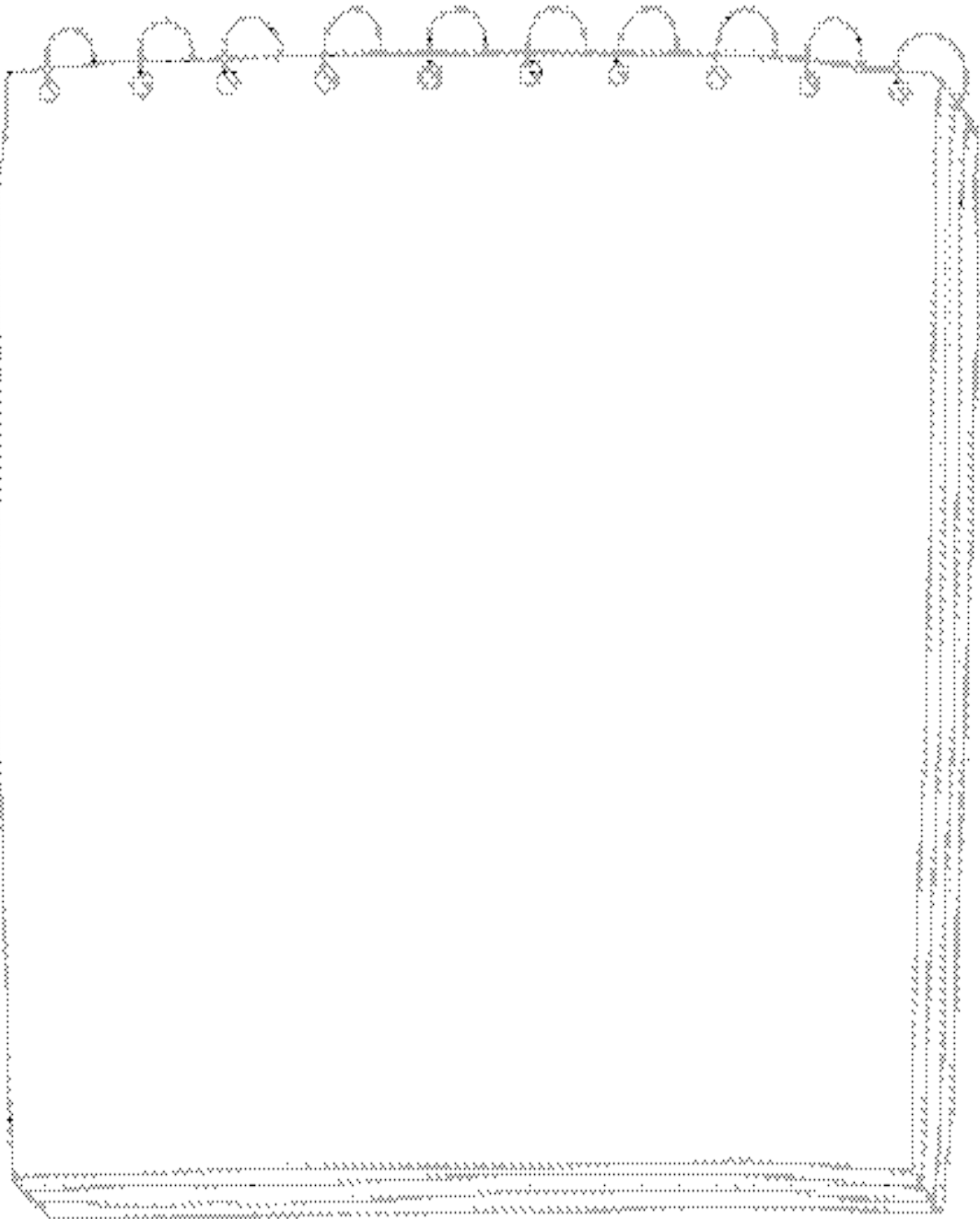


상상을 표현해요

그림으로 자신의 상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감상을 나눈다.

책 속 세상으로 간다면?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들만 남고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사라진 책 속 세상에 직접 간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글, 그림, 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표현해 보세요.





생각을 정리해요

책의 주제를 나의 삶에 반영하여 생각해 보는 힘을 기른다.

나의 우선순위

◎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은 밥도 알약으로 먹고 걸음도 무빙 워크로 걷고 결혼 상대도 기계가 선택해 주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 음악 같은 예술도 불필요해지고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삶에는 수많은 가치와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 책 속 세상에서는 '실용성'을 최고이자 유일한 가치로 삼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을 떠올려 적어 보고 그것들을 다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맞춰 나열해 보세요.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

1	
2	
3	
4	
5	